

## 중세국어 ‘하다’와 ‘만하다’의 문법적 특성\*

이 상 금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 1. 서론

이 글은 중세국어<sup>1)</sup> 형용사 ‘하다’, ‘만하다’의 문법적 특성에 대해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하-’, ‘만하-’의 활용 양상 및 ‘하-’, ‘만하-’를 통해 형성된 단어들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또한 ‘하다’, ‘만하다’가 이루는 구문의

---

\* 이 글은 2007년 7월 5~6일에 있었던 국어사학회 여름연구회에서 “하다와 만하다의 문법적 특성”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것을 수정하고 다듬은 것이다. 토론을 맡아 주셨던 울산대 이은섭 선생님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던 여러 선생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아울러 이 글을 읽어 주시고 부족한 점을 지적해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들께도 감사드린다. 충분히 보완하지 못한 부분은 모두 필자의 책임이다.

1) 이 글에서의 ‘중세국어’는 이기문(1998)의 ‘후기중세국어’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런데 중세국어에서 15세기 국어와 16세기 국어는 비슷한 점도 있지만, 여러 차이점을 보여 주기도 한다. 차이점을 논의하는 경우에는 ‘15세기 국어’, ‘16세기 국어’라고 부를 것이다.

**주 제 어:** 존재 형용사, 형용사의 동사적 용법, 선어말어미 ‘-ㄴ-’, 존재 구문, 소유 구문

existential adjective, verbal usage of adjective, the prefinal ending ‘-na-’, existential construction, possessive construction.

양상도 살펴보고자 한다.

그동안 중세국어 형용사에 대한 논의로 ‘있다’, ‘없다’와 관련된 쟁점 및 심리형용사, 비교 형용사 등과 같은 특정 형용사에 대한 것이 있었다. 최근에는 통사적 특성이나 의미를 기준으로 하여 전체 형용사를 분류하는 논의도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하다’, ‘만하다’가 어느 부류에 속하는지 언급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하다’, ‘만하다’가 아니라 전체 형용사를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춘 것이고, 분류된 형용사 유형 중 하나에 ‘하다’, ‘만하다’가 속해 있다는 논의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따라서 ‘하다’, ‘만하다’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중세국어의 ‘하다’, ‘만하다’의 문법적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하다’와 ‘만하다’에 대한 고찰을 통해 ‘하다’, ‘만하다’가 다른 형용사와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많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던 ‘하다’와 ‘만하다’가 어떤 점에서 구별되고, 어떤 특성을 공유하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고자 한다.

## 2. ‘하다’와 ‘만하다’의 형태론적 특성

### 2.1. 활용 측면에서

‘하-’와 ‘만하-’에 어떤 선어말어미나 어말어미가 통합되는가를 살펴봄으로써 그 활용상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형용사 ‘하-’, ‘만하-’에 선어말어미 ‘-느-’가 통합된 특이한 활용형에 대해서만 고찰해 보고자 한다.

15세기 국어에서 형용사 어간에 ‘-느-’가 통합되지 않는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러한 이유로 형용사와 동사를 구별할 때 ‘-느-’의 통합 여부를 따져 보게 된다.<sup>2)</sup>

- (1) ㄱ. 돌흔 根의 發흔 識이니 根이 變<sup>ㅎ</sup>야 달오물 브러 識이 반드기 變<sup>ㅎ</sup>야 다<sup>ㅎ</sup>락<sup>ㅎ</sup>느<sup>ㅎ</sup>니 眼根이 <sup>ㅎ</sup>야디면 靑을 보고 黃을 삼<sup>ㅎ</sup>듯 <sup>ㅎ</sup>니 <圓覺上 2-2:74a>
- 나. 이 하늘들히 늙디웃 목수미 오<sup>ㅎ</sup>라<sup>ㅎ</sup>느<sup>ㅎ</sup>니 四王天 목수미 人間엿 쉰 히를 <sup>ㅎ</sup>르<sup>ㅎ</sup>음 혜여 五百 <sup>ㅎ</sup>니 <月釋1:37b-38a>
- ㄷ. ㅈ와 즈<sup>ㅎ</sup>츰<sup>ㅎ</sup>이 <sup>ㅎ</sup>뻘<sup>ㅎ</sup> 니르와드면 霍亂이 드외야 머리 <sup>ㅎ</sup>트<sup>ㅎ</sup>르며 누니 <sup>ㅎ</sup>트<sup>ㅎ</sup>르며 손뻘 <sup>ㅎ</sup>미 올<sup>ㅎ</sup>며 四肢 <sup>ㅎ</sup>느<sup>ㅎ</sup>니 <救方上31a>
- ㄹ. 치우면 곧 너븐 하늘히 <sup>ㅎ</sup>칩고 더우면 곧 너븐 하늘히 덥<sup>ㅎ</sup>느<sup>ㅎ</sup>니라 <金三 4:17b>
- ㄴ. <sup>ㅎ</sup>츰<sup>ㅎ</sup>기름 半 蠶을 녀허 <sup>ㅎ</sup>달<sup>ㅎ</sup>湯<sup>ㅎ</sup>罐에 붓가 누르거든 수레 녀허 더우닐 먹고 <sup>ㅎ</sup>즈<sup>ㅎ</sup>식을 알<sup>ㅎ</sup>폰 <sup>ㅎ</sup>디 브<sup>ㅎ</sup>튜<sup>ㅎ</sup>리니 <sup>ㅎ</sup>샬<sup>ㅎ</sup>리 두서 沙鉢을 머그면 편<sup>ㅎ</sup>안<sup>ㅎ</sup>느<sup>ㅎ</sup>니라 <救方下21a>
- ㄷ. 伊川先生이 表記에 君子 | 식<sup>ㅎ</sup>식<sup>ㅎ</sup>하고 공<sup>ㅎ</sup>경<sup>ㅎ</sup>호면 날로 견<sup>ㅎ</sup>강<sup>ㅎ</sup>하고 편<sup>ㅎ</sup>안<sup>ㅎ</sup>하고 <sup>ㅎ</sup>퍼 브<sup>ㅎ</sup>리면 날로 게<sup>ㅎ</sup>으<sup>ㅎ</sup>른<sup>ㅎ</sup>다 <sup>ㅎ</sup>는 말을 ㄱ장 도<sup>ㅎ</sup>히 녀<sup>ㅎ</sup>기<sup>ㅎ</sup>터시니 <小學5:87a>
- ㅅ. 酒壺를 기우리고 더피리 부로매 <sup>ㅎ</sup>센 머리 도로 검<sup>ㅎ</sup>느<sup>ㅎ</sup>니 갈 가지고 <sup>ㅎ</sup>츰<sup>ㅎ</sup>추<sup>ㅎ</sup>멘 서리와 눈괘 靑春에 붙이<sup>ㅎ</sup>는 <sup>ㅎ</sup>듯<sup>ㅎ</sup>호<sup>ㅎ</sup>다 <杜詩19:22b>

(1ㄱ)은 “변하여 달라지니”로, (1나)은 “목숨이 길어진다” 정도로 해석될 수 있다. (1ㄷ, ㄹ, ㄴ, ㅅ)은 모두 선행절에 ‘…호면’이 오는데, “…하면 …어진다” 또는 “…하면 … 하게 된다”로 해석된다. 특히 (1ㄷ, ㅅ)은 ‘날로’와 ‘도로’와 같은 부사와 함께 쓰였는데,<sup>3)</sup> “나날이 게을러진다”, “센 머리가 도로 검게 된다”의 뜻

2) 형용사와 동사를 판별할 때 ‘-느(-는)’의 통합이 가능한가를 살펴보는 방법을 사용하는데, 이러한 방법은 현대국어에도 이어진다. 송철의(1992: 103)에서는 형용사와 동사의 영접사 파생을 논의하면서 동사에는 ‘-느/는’이 통합할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동사와 형용사의 품사 분류 문제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임흥빈(2002: 736-740)을 참조할 수 있다.

3) ‘날로’, ‘도로’ 등의 부사와 형용사의 공기에 대해서는 이영경(2003나: 224-230)에서 지적된 바 있다. 그리고 이영경(2003나)에서는 이러한 예를 동사적 용법으로 사용된 형용사로 보았다.

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의 예들은 ‘-느-’가 통합되었다든가 양태 부사와 함께 쓰였다는 측면에서 형용사의 일반적 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 즉 자동사적 용법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sup>4)</sup>

동사는 형태론적으로 ‘-느-’와 통합할 수 있는 한편, 의미적으로 어떤 ‘변화’를 나타낼 수 있다.<sup>5)</sup> 이 ‘변화’라는 것은 형용사가 나타낼 수 없고 동사만이 나타낼 수 있는 의미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1)은 ‘변화’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을 형용사가 동사적 용법으로 쓰인 예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sup>6)</sup>

그렇다면 과연 (1)과 같은 ‘변화’의 의미는 어디에서 기인한 것인가.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에 ‘-느-’가 통합되어 ‘변화’의 의미가 되었으므로, 우선 ‘-느-’가

4) 이러한 예들에 대해 기존의 논의에서는 ‘전용’이나 ‘겸용’으로 설명하였다. ‘전용’의 입장에서는 이 형용사들이 동사로 ‘전용’되었기 때문에 ‘-느-’가 통합될 수 있었다고 설명한다. ‘겸용’의 입장에서는 이들이 형용사와 동사의 기능을 겸하고 있었는데 그 동사적 용법으로 쓰인 어간에 ‘-느-’가 통합되었다고 본다. 이 글에서는 몇몇 형용사에서만 또는 특정한 환경에서만 동사적 용법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형용사 자체가 동사적 용법도 함께 가지고 있었다고 보아 잠정적으로 ‘겸용’의 입장을 따르기로 한다. ‘전용’에 대해서는 고영근(1997), ‘겸용’에 대해서는 이현희(1994), 장윤희(2002: 123-126), 이영경(2003 1: 33)을 참조할 수 있다.

5) 이안구(2002: 7-8)에서는 형용사와 동사가 의미면에서 다음과 같은 차이를 보인다고 지적하였다. 동사가 나타내는 ‘사건’은 시간적 폭이나 끝점과 같은 시간성이 개입하지만, 형용사가 나타내는 ‘상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시간성’을 선어말어미 ‘-느-’(또는 ‘-는-’)와 관련되는 요소로 보았다. 이 글에서도 ‘변화’를 ‘시간성이 개입한다’의 뜻으로 사용할 것이다. 그러나 때로는 ‘-느-’가 ‘시간성’과 무관하게 쓰일 수도 있었다는 것이 이 글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서는 후술할 것이다.

6) 우리는 중세국어의 형용사가 동사적 용법, 특히 자동사적 용법을 겸할 수 있었다고 본다. 따라서 이 글에서 “어떤 형용사가 동사적 용법으로 쓰였다”라는 표현은 ‘변화’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을 때 하게 될 것이다. 이 ‘변화’의 의미는 그 단어를 현대국어로 해석할 때 “-어지다” 또는 “-게 되다”의 의미로 볼 수 있는 경우 파악될 수 있는 것이라 본다. 물론 이러한 해석은 현대국어의 관점에서 판단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에게 중세국어의 직관이 없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이러한 방법을 택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이 글에서는 대개 형용사로 쓰이는 단어이지만 “변화”의 의미가 파악될 때 그것이 동사적 용법으로 쓰였다고 볼 것이다.

‘변화’의 의미를 갖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sup>7)</sup> 이러한 관점에서 다음의 (2)를 살펴보기로 하자.

- (2) ㄱ. 부려 올위러 보스툼 사르미 一切 三塗 八難이며 ㄱ장 모던 罪 다  
 업서 버서나니라 <釋詳23:12a>  
 ㄴ. 妄心을 브리느니 므슴 가져 妄 들면 妄이 도르혀 기프리라 <南明上  
 79a>  
 ㄷ. 礪石이 히마다 노프니 天地에 사르미 나날 머구리 수스듯 ㅎ터라  
 <杜初24:41a>  
 ㄹ. 기루물 해 ㅎ면 우므렛 므리 흐리리라 <杜初8:32b>  
 ㅁ. 病흔 사르미 잇겨든 夫人이 머리를 문지시면 病이 다 도터라 <月釋  
 2:30b>

(2ㄱ)은 “모진 죄가 다 없어져 벗어나리라”로, (2ㄴ)은 “망령됨이 도리어 깊어질 것이다”로 해석된다. (2ㄷ)은 ‘히마다’와 함께 쓰여 “높아졌는데”로 해석된다. (2ㄹ, ㅁ)은 선행절에 상황을 가정하는 ‘ㅎ면’이 있는데 (2ㄹ)은 “흐려질 것이다”로, (2ㅁ)은 “좋아지더라” 즉 “낫더라”로 해석된다. 즉 (2)의 밑줄 친 단어들은 모두 “-어지다”로 해석되는데, 이것은 ‘-느-’가 통합되어 있지 않은데도 그것들이 “변화”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 주는 예이다. 이를 통해 “변화”의 의미는 ‘-느-’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 어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라는 것을 알 수 있다.<sup>8)</sup>

지금까지는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가 ‘변화’의 의미를 나타낼 수도 있다는, 즉 동사적 용법도 지니고 있었다는 사실을 살펴보았다. (2)와 같이 선어말어미 ‘-느-’가 통합되지 않은 경우에도 ‘변화’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예를 통해, 이러

7) 이러한 관점은 이승욱(1997: 283)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이영경(2003 ㄱ, ㄴ)에서 지적되었다. 즉 ‘-느-’가 [-균질(변화성)]을 가지는 형태소이기 때문에 형용사와 통합하여 ‘변화성’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8) 형용사 어간 자체가 동사적 용법으로 쓰일 수 있었다는 논의는 이영경(2003 ㄱ, ㄴ)을 참조하였음을 밝혀 둔다.

한 동사적 용법이 형용사 어간 자체가 가지고 있었던 특성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용법은 중세국어 형용사가 보여 주는 매우 특징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우리가 논의하고자 하는 ‘하-’에도 ‘-느-’가 통합된 예를 찾을 수 있다.

- (3) ㄱ. 불휘 기픈 남근 브르매 아니 뭇씩 곳 도코 여름 하느니 <龍歌2>  
 ㄴ. 孟子 | 굴으샤되 富흔 歲엔 子弟 | 賴흔이 하고 凶흔 歲엔 子弟 |  
 暴흔이 하느니 天의 才를 降흔이 그리히 달음이 아니라 그 씨 그 心  
 을 陷溺흔 배 그리하니라 <맹자11:14b>
- (4) ㄱ. 자븐거시 盛흔면 반드시 衰흔고 니러나미 이시면 도로 물허덤이 인  
 느니 썰리 일면 굳디 못흔고 급히 드르면 업드롬이 하느니라 <小學  
 5:26a>  
 ㄱ'. 만물이 성흔면 모로매 쇠흔고 니러나미 이시면 도로 물어두미 이시  
 며 썰리 일면 굳디 못흔고 썰리 드르면 업드로미 하느니라 <翻小  
 6:28a>  
 ㄴ. 子 | 굴으샤되 利에 放흔야 行흔면 怨이 하느니라 <논어1:35a>

(3)의 ‘하느니’는 ‘변화’의 의미가 담긴 “많아지니”로 해석할 수 있다. (4)도 “V-하면 NP-이 많아진다”로 해석된다.<sup>9)</sup> 앞서 중세국어의 형용사가 동사적 용법도 겸하고 있었다는 것을 살펴보았는데, (3), (4)는 ‘하다’도 그러한 용법이 있었음을 보여 주는 예가 된다.

‘하-’의 동사적 용법은 ‘-느-’가 통합되지 않은 다음과 같은 예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5) ㄱ. 四王天 목수미 人間엿 쉰 히를 흐락옴 해여 五百 히니 그 우히 漸漸  
하아 四禪天에 가면 ㄷ 저근 목수미사 一百 슴들 다섯 大劫이오  
 <月釋1:38a>

9) 고영근(1997: 170)에서는 ‘하다, 크다’ 등이 형용사와 동사로 두루 쓰였다고 표현하면서, 이들이 선어말어미 ‘-느-’를 취함으로써 동사임을 더 분명히 표시하는 일도 있었다고 설명하였다.

나. 알 뵈며 젓 머겨 나호문 그 類 날로 하물 니르시고 <法華2:117a>

(5ㄱ)은 ‘하다’ 앞에 ‘漸漸’이라는 부사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점점 많아져서”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5ㄴ)은 ‘날로’라는 부사어가 ‘하다’를 수식하고 있는데, 이것도 “그 類가 나날이 많아짐을…”의 의미를 나타낸다. (5ㄱ, ㄴ)의 ‘하다’는 함께 쓰인 부사의 의미를 통해 “많다”가 아니라 “많아진다”로 쓰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5)는 ‘하’가 ‘-느-’와 통합하지 않고도 ‘변화’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하’가 형용사적 용법뿐만 아니라 동사적 용법도 지니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가 ‘변화’의 의미를 나타낼 수도 있다는, 즉 동사적 용법도 지니고 있었다는 사실을 살펴보았다. (2), (5)와 같이 선어말어미 ‘-느-’가 통합되지 않은 경우에도 ‘변화’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예를 통해 이러한 동사적 용법은 형용사 어간 자체가 가지고 있었던 특성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용법은 중세국어 형용사가 보여 주는 매우 특징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다.<sup>10)</sup> 한편 우리는 (6)과 같은 예도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6) ㄱ. 大王하 아르쇼셔 姪欲엿 이룬 즐거부문 적고 受苦 | 하느니 브름 거스려 暍 자봄 곤흐야 노하 브리디 아니흐면 당다이 제 모미 데오 <月釋7:18a>

나. 胎生은 翳한 性이오 濕生은 邪를 좃는 性이오 化生은 보아 가는 性이니 …… 므스미 一定티 묻히고 보아 가 빠듀미 하느니 므스물 니르와다 므스물 닷가 울흐며 외요물 간대로 보아 안해 無相理에 맞디 아니홀 씨 일후미 有色이오 <金剛16b>

ㄴ. 王吉의 上疏에 글오되 남진겨집은 人倫의 큰 물리오 단명흐며 당슈흐는 冥되니 世俗이 혼인헝기를 너무 일 흐야 사름의 어버이 될 도리를 아디 묻혀서 ㅈ식을 두는 디라 일로써 ㅈ르쳐 化헝게 흐는 일이 ㅈ디 묻히고 ㅈ색성이 단명헝리 하느니라 <小學5:63a><sup>11)</sup>

10) 중세국어 형용사의 동사적 용법에 대해서는 이영경(2003ㄱ, 2003ㄴ)을 참조할 수 있다.

(6)은 ‘하-’에 ‘-느-’가 통합된 예이다. (6ㄱ)은 “즐거움은 적고 수고는 많으니”로, (6ㄴ)은 “화생은 …… 마음이 일정하지 못하고 …… 꺼짐이 많으니”로 해석된다. 동사적 용법도 가지고 있었던 형용사에 ‘-느-’가 통합되는 경우는 대개 그것이 동사적 용법으로 쓰였을 때이다. 그런데 (6)은 ‘하-’가 “많다”라는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였을 때도 ‘-느-’가 통합될 수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는 매우 특이한 현상이 아닐 수 없다.

(6)과 같은 현상은 ‘하-’뿐만 아니라 다른 형용사의 예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 (7) ㄱ. 天下 | 大平<sup>한</sup> 저근 글워리 文字 | 곤<sup>한</sup>며 술위 자취 곤느니 法으로  
圓敎人<sup>한</sup> 實<sup>한</sup> 文字 | 곤<sup>한</sup>며 譬喩론 큰 술위 一乘人 자취 곤<sup>한</sup>  
시라 <改法序1:4a>
- ㄴ. 깃븐 恩澤이 天下에 그득<sup>한</sup>느니 데 貪<sup>한</sup>癡 | ㅁ조되 神力이 오히려  
이 곤<sup>한</sup> ㅎ물며 法界 慧 | 具足自在力이<sup>한</sup> ㅅ녀 <法華6:101a>
- ㄷ. 서르 親<sup>한</sup>며 서르 갓갑<sup>한</sup>느니 ㄴ 가온<sup>한</sup> ㄷ<sup>한</sup> 곱머기<sup>한</sup>로다 <杜初7:4a>
- ㄹ. 涅槃에 니르샤되 破戒 比丘는 모매 식<sup>한</sup> 德이 엷<sup>한</sup>느니라 ㅎ시니라  
<禪宗上:33a>
- ㅁ. 일체 중<sup>한</sup>들히 열두 인연을 룡히 보되 ㅁ<sup>한</sup>니 이런 ㄷ<sup>한</sup>로 사르미 번복  
ㅎ야 구으려 나오며 주그며 고롭<sup>한</sup>느니라 <장수22a>

(1)에서 ‘형용사 어간+‘-느-’는 ‘변화’의 의미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7)의 ‘곤<sup>한</sup>느-’, ‘그득<sup>한</sup>느-’, ‘갓갑<sup>한</sup>느-’, ‘엷<sup>한</sup>느-’, ‘고롭<sup>한</sup>느-’은 그 뒤에 ‘-느-’가 통합되어 있지만, ‘변화’의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워 보인다. (7ㄱ)은 “글월이 문자와 (서로) 같으며 수레의 자취와 같으니”로, (7ㄴ)은 “기쁜 은택이 천하에 가득하니”로 해석되어 어떠한 ‘상

11) (6ㄴ)은 다르게 볼 수도 있다. 즉 “백성 중에 단명할 사람이 많아지니라”로 해석하여 “ 많아진다”라는 뜻을 나타낸다고 파악하는 것이다(이영경 2003 ㄱ: 15). 그러나 ‘내일 여행 갈 사람이 많다’와 같은 문장에서 볼 수 있듯이 ‘상태’를 나타내는 “많다”로 해석할 가능성도 있다. 즉 “백성 중에 단명할 사람이 많다(많을 것이다)”로 보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상태’의 뜻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았다.



태’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7ㄷ)의 ‘갓갓늑닌’은 “가까이 하는 것은”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sup>12)</sup> “서로의 사이가 다정하고 친하다”라는 의미를 지닌 형용사로 보고 “가까운 것은”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7ㄷ)도 “덕이 없다”로 해석되고, (7ㄱ)도 “괴로워진다”가 아니라 “괴롭다”로 해석되어 역시 ‘상태’라는 의미를 보여준다. (7)의 예들은 ‘상태’의 뜻을 나타낼 때에도, 즉 형용사가 동사적 용법으로 쓰이지 않았을 때에도 ‘-느-’가 통합된 것을 보여주는 예라는 측면에서 매우 주목된다.<sup>13)</sup>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중세국어의 형용사는 동사적 용법도 함께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용법으로 쓰였을 때 선어말어미 ‘-느-’가 통합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였다. 즉 형용사의 동사적 용법은 선어말어미 ‘-느-’와 무관한 것이고, 형용사 그 자체의 용법인 것이다.

둘째는 동사적 용법이 아니라 ‘상태’를 나타내는 본래의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인 어간에도 ‘-느-’가 통합된 예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예는 중세국어 형용사가 보여준 매우 특이한 활용형이라는 측면에서 주목된다. 특히 (6), (7)은 형용사 어간에도 ‘-느-’가 통합될 수 있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예이다. 이런 예를 통해 그동안 우리가 ‘형용사 어간+<sup>-</sup>느-’의 의미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채, 으레

12) 고영근(1997: 73)에서는 ‘갓갓늑닌’을 형용사 ‘갓갓-’에 ‘-느-’가 통합되어 동사가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해석은 형용사적 용법과 동사적 용법의 판별이 ‘-느-’ 통합 여부에 달려 있다고 파악하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13) 기존에는 ‘-느-’가 통합된 형용사 어간에 대해 거의 무조건적으로 그것이 자동사적 용법으로 쓰인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러나 이상금(2006)에서는 형용사 어간에도 ‘-느-’가 통합될 수 있었다는 것에 주목하였다. 왜 이러한 통합이 가능하였으며, 이러한 통합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는 형용사 어간뿐만 아니라 선어말어미 ‘-느-’의 성격도 살펴 보면서 생각해야 할 것이므로, ‘-느-’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글은 ‘하다’와 ‘만하다’에 초점을 맞춘 것이고, 그들의 활용형을 살피는 과정에서 ‘-느-’의 특별한 용법에 대해 생각하게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느-’가 대개 동사에 통합되어 ‘시간성’과 관련되는 요소로 쓰였지만 (6), (7)의 예와 같이 ‘시간성’과 무관하게 쓰일 수 있었다는 점만을 언급하고자 한다. ‘-느-’의 쓰임에 대해서는 이후 다른 글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그것을 자동사적 용법으로 쓰인 것으로 파악하여 “-어진다”로 해석해 온 것은 아닌가 하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 (3) ㄱ. 불휘 기픈 남근 브락매 아니 뵘썩 곳 도코 여름 하느니 식미 기픈  
 르른 ㄱ막래 아니 그출썩 내히 이러 바락래 가느니 <龍歌3><sup>14)</sup>

(3ㄱ)은 이미 앞에서 인용한 예인데, 그동안은 ‘하느니’의 ‘-느-’로 인해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아니하므로 꽃이 좋아지고 열매가 많아지니”로 해석해 왔다. 그러나 이 글에서 논의한 것과 같이 형용사 어간에도 ‘-느-’가 통합될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이 예를 “꽃이 좋고 열매가 많으니”로 해석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하-’가 동사적 용법도 지니고 있었다는 것과 형용사로 쓰인 ‘하-’에도 ‘-느-’가 통합된 예가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만흐-’는 동사적 용법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우선 선어말어미 ‘-느-’와 통합한 예도 보이지 않고, ‘漸漸’과 같은 부사와 함께 쓰인 문장도 보이지 않았다. 이를 통해 중세국어에서 ‘하-’가 형용사적 용법과 동사적 용법을 함께 지니고 있었던 반면, ‘만흐-’는 형용사적 용법만 지니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 2.2. 단어 형성 측면에서

‘하-’와 ‘만흐-’가 단어 형성 측면에서 어떠한 특성을 보이는지에 대해서는 이들을 통해 형성된 부사를 통해 논의하고자 한다.

14) 구본관(1996: 77)에서는 (3ㄱ)을 형용사에 ‘-느-’가 통합된 예로 들면서, 이것을 다음의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하나는 중세국어에서 동사와 형용사의 구분이 품사의 차이가 아니라 같은 품사 내의 하위 범주의 차이로 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형용사가 예외적으로 자동사의 용법을 가진 것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후자의 입장인데, 다만 이러한 자동사적 용법은 형용사의 ‘예외적’ 용법이 아니라 ‘일반적인’ 용법으로 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하-’를 어기로 하여 형성된 부사에는 ‘하’와 ‘해’가 있다.<sup>15)</sup> 먼저 ‘하’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 (8) ㄱ. 大王이 이제 地獄 밉ᄃᆞ시고 사르미 한 주기시느니 <釋詳24:17b>  
 ㄴ. 이런 어린 사르미 모딘 法을 한 지서 붓그름 업다가도 命終 훔저기 善知識을 맛나 <月釋8:69b>  
 ㄷ. 쯔 霍亂 하야 吐下 후에 ㄱ장 목 물라 물 한 머그면 사름 주기느니 (又方治霍亂吐下後大渴多飲則殺) <救方上34a>

(8)은 ‘하’가 수나 양과 관련되어 그 정도를 표시하는 “많이”라는 뜻으로 쓰인 것이다. 그런데 ‘하’는 “많이” 외에도 다른 의미를 나타낼 수 있었다.

- (9) ㄱ. 그 지비 한 가스며려 약대와 라귀와 象과 물왜 뵈히며 드르헤 차 ㄱ득 후고 <月釋23:72a>  
 ㄴ. 쯔 닐오디 이 보빅 한 貴하야 闊浮提사 中에 마즌 감시 업스니 해 ㄱ거비 신디 말라 <月釋22:38b>  
 (10) ㄱ. 舍利弗이 닐오디 ㄱ술히 멀면 乞食 하디 어렵고 한 갓가북면 조티 ㄱ흔리니 이 東山이 甚히 맛갑다 <釋詳6:23b>  
 ㄴ. ㄱ려다가 비를 ㅅ아 보니 그 소매 거믄 벌에 기리 두서 ㄱ흔 이고 내 한 ㄱ러버 사르미 ㄱ 나사가리러라 <釋詳24:50b>  
 ㄷ. 너희 天人 들히 한 슬허 말라 <釋詳23:8a>

(9)는 “매우”, “아주”로, (10)은 “너무”, “심하게”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렇게 부사 ‘하’는 “많이” 외에도 다양한 의미를 쓰였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는 부사 ‘하’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이제 이것이 형성되었는지

15) 이 글에서 어기와 어근의 개념은 이익섭(1975)를 따른 것이다. 즉 접사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어기를 두고, 어기에 어간과 어근의 두 종류가 있는 것으로 본다. 어간은 굴절접사와 직접 통합할 수 있거나 자립형식인 어기이며, 어근은 굴절 접사와 직접 통합될 수도 없고 자립형식도 아닌 어기이다.

생각해 볼 것이다. 부사 ‘하’가 어간 ‘하’와 어형이 일치하기 때문에 그동안 영파생에 의해 부사가 되었다고 논의되어 왔다.<sup>16)</sup> 이 글에서는 ‘하’와 연결어미 ‘-아’의 통합형인 ‘하’와 관련시켜 보고자 한다.

- (11) ㄱ. 그어귀 쇠 하아 쇼로 천 사마 흥정흐느니라<月釋 1:24b>  
 ㄴ. 世尊하 이 사르미 功德이甚히 하 無量無邊흐니 <月釋17:48b>  
 ㄷ. 이 곤흐 사르미 하 이ㄱ티 서르 ㄱ르치느니 그럴시 큰 錯인 돌아  
 를 디니라 <六祖中6a-6>

(11)은 ‘하’에 연결어미 ‘-아’가 통합되어 있는 예이다. (11ㄱ)의 ‘하아’는 잉여적 표기가 나타난 것인데, 이러한 표기는 ‘가+아’ 실현이 ‘가아~가’의 두 모습으로 나타나는 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11ㄱ)과 같이 잉여적 표기가 나타나지 않은 (11ㄴ, ㄷ)의 ‘하’는 ‘하+아’에서 어간 모음이 탈락한 것이다. 물론 이에 대해서 어미 ‘-아’가 탈락되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sup>17)</sup> 하지만 (11ㄱ~ㄷ)에서 연결어미 ‘-아’는 “이유”나 “시간의 선후 관계”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이런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아’가 탈락되었다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이런 측면을 고려하여 여기에서는 활용형 ‘하’에 어미의 ‘-아’가 남아 있다고 본다.

이제 이 활용형 ‘하’가 어휘화<sup>18)</sup>하여 부사가 되었을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 보

---

16) 고영근(1997: 190), 안병희 외(2002: 47)에서는 영파생으로 보았다. 하지만 영파생으로 본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되어 있지 않다.

17) 홍윤표(1998: 580)에서는 ‘하’와 어미 ‘-아’가 통합된 ‘하아’에서 어미 ‘-아’가 탈락되어 부사 ‘하’가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되어 있지 않다.

18) 어휘화(lexicalization)는 다음의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하나는 김성규(1987: 23), 송철의(1992: 32), Lipka(1992:95)와 같이 어떤 복합어가 통시적으로 음운론적, 형태론적, 의미론적 변화를 입어서 공식적인 규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경우를 뜻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박진호(1994: 23), 송원용(1998: 26), 채현식(2000: 6)과 같이 어휘부 밖에 존재하는 요소가 어휘부에 등재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 글에서는 ‘어휘화’를 전자의 개념으로 쓴다.

고자 한다. 이것은 그 성조를 통해 뒷받침 될 수 있을 것이다.<sup>19)</sup> ‘가-, 두-, 주-, 하-’ 등과 같이 일음절 용언이면서 단모음으로 끝나는 어간은 뒤에 오는 어미의 종류에 따라 평성 또는 거성으로 실현된다. 즉 어미에는 어간을 거성으로 실현시키는 어미(강어미)와 평성으로 실현시키는 어미(약어미)가 있는데, 일음절 용언이면서 단모음으로 끝나는 어간은 뒤에 강어미가 오면 거성으로 실현되고 약어미가 오면 평성으로 실현된다고 할 수 있다.<sup>20)</sup>

여기서 주목하는 어미 ‘-아’는 강어미에 해당되고, 그 자체가 거성이므로 (11ㄱ)에서 ‘하아’의 성조는 ‘거성-거성’이 된다. (11ㄴ, ㄷ)의 활용형 ‘하’는 그 성조가 거성인데,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서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어간 ‘하-’의 ‘아’가 탈락된 ‘ㅎ(ㄹ)’이 어미 ‘-아(거)’와 통합되어 ‘하’(거성)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 활용형 ‘하’의 성조는 부사 ‘하’의 성조와 일치한다. 이를 통해 부사 ‘하’는 부사형 ‘하’가 어휘화한 것일<sup>21)</sup> 가능성 제기할 수 있다.<sup>22)</sup>

다음은 부사 ‘해’의 예이다.

- 
- 19) 중세국어의 형태론적 논의에서 그것을 성조현상과 결부시켜 보는 방법은 기존의 해석과 다른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줄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은 이현희(2003)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사 ‘하’의 형성에 대해 성조와 관련하여 살펴보는 방법도 이현희 선생님의 지적에 힘입은 것이다.
- 20) 일음절이면서 단모음으로 끝나는 용언의 목록, 강어미와 약어미의 목록 및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김완진(1977)과 김성규(1993, 2003)을 참조할 수 있다.
- 21) 이렇게 활용형이 어휘화를 통해 부사로 된 예는 다른 단어에서도 찾을 수 있다. 우선 색채를 나타내는 부사 ‘파라’, ‘벌거’, ‘해야’, ‘누러’, ‘거머’ 등을 들 수 있다(이현희 2003). 또한 현대국어의 ‘아울러’, ‘따라서’ 등도 어휘화한 예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어미 ‘-아/어’에 의한 어휘화뿐만 아니라 ‘-고’에 의한 어휘화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예로 ‘이숙고’를 들 수 있다. 이 ‘이숙고’는 ‘이숙ㅎ’에 어미 ‘-고’가 통합된 활용형이 어휘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22) 현대국어에 ‘하도 많아서’, ‘하도 심해서’라는 말이 있는데, 이 ‘하도’의 ‘하’는 지금까지 살펴본 부사 ‘하’의 흔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현대국어의 ‘하도’는 ‘조금도’와 동일한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부사+도’의 구조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 (12) ㄱ. 이럴씩 **해** 듣고 漏 업수믈 得디 몬홀씩 <楞嚴1:76b>  
 ㄴ. 黃羊은 빅브르 머저도 누리디 아니 호고 蘆酒는 **해** 머그면 도로 醉  
 호느니라 <杜初22:36a>

(12)는 부사 ‘해’가 ‘하’와 마찬가지로 “많이”의 의미를 나타냈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런데 ‘해’는 “많이” 외의 의미도 나타낼 수 있었다.

- (13) ㄱ. 世尊이 너기샤되 四部衆이 **해** 게을어 다 法을 듣디 아니 호느니  
 <月釋21:4a>  
 ㄴ. 이 보빅 하 貴호야 闍浮提스 中에 마즌 갑시 업스니 **해** 므거비 신  
 디 말라 빅 즈믄리라 <月釋22:38b> 해

(13)의 ‘해’는 “매우”, “아주” 또는 “너무”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하’와 ‘해’는 모두 “많이”뿐만 아니라 정도를 나타내는 “매우”, “아주”, “너무”라는 뜻도 나타낼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부사 ‘해’의 형성에 대해서는 ‘하’에 부사 파생 파생접미사 ‘-이’가 통합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sup>23)</sup> 중세국어에서 형용사 어간과 부사파생접미사 ‘-이’의 통합은 매우 생산적이었으므로(박성현 1989: 28), 그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본다.

지금까지 살펴본 ‘하’와 ‘해’는 모두 “많이”, “매우”, “너무”라는 의미를 표현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공통점이 있기는 하지만, 약간의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용례를 검토해 보았을 때 ‘하’는 주로 “매우”나 “너무”의 의미를 나타내고 “많이”의 의미를 지닌 용례는 별로 보이지 않았다. 반면 ‘해’는 “많이”의 뜻을 나타내는 용례수가 많고, “매우”의 의미를 지닌 용례는 그리 많지 않았다.<sup>24)</sup>

이제 어간 ‘만호-’를 어기로 하여 형성된 부사인 ‘만히’를 살펴볼 것이다. 먼저

23) 이렇게 부사파생접미사가 통합되었다는 것은 고영근(1997: 187), 안병희 외(2002: 46)에서 설명된 바 있다.

24) ‘하’와 ‘해’는 19세기까지 그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19세기에 보인 ‘해’의 예이다.

이 곳치 **해** 밝음으로써 여러 갈닐니인보다 죄가 더 잇는 줄 아느냐 <늑 13, 2>

‘만히’의 형성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자. 앞서 ‘해’에서 보았고, ‘슬히’, ‘즈세히’ 등에서도 알 수 있듯이 중세국어에서는 형용사 어간에 주로 부사파생접미사 ‘-이’가 통합되었다.<sup>25)</sup> ‘만히’ 역시 부사파생접미사 ‘-이’가 통합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도 그 성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부사 ‘만히’의 성조는 ‘상거’(월인석보 21:108 등)로 나타난다. 어간 ‘만ㅎ-’의 성조가 ‘상성·평성’인데 여기에 부사파생 접미사 ‘-이(H)’가 통합되면, 이 과정에서 형성된 ‘만히’의 성조는 ‘상거’가 된다.<sup>26)</sup> 이는 부사 ‘만히(RH)’의 성조와 일치한다. 이를 통해 부사 ‘만히’는 부사파생접미사 ‘-이’에 의해 형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제 ‘만히’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 (14) ㄱ. 글도 만히 알며 가슴머리 布施도 만히 ㅎ더니 <釋詳6:12a>  
 ㄴ. 소음을 만히 실의 떠 덩게 ㅎ야 <救簡1:66a>  
 ㄷ. 眷屬 만히 모도아 슬 고기 머그며 풍류 ㅎ씨 子母 | 安樂디 묻게  
 ㅎ느니 <月釋21:124b>

(14)의 ‘만히’는 “많이”로 해석된다. ‘하’, ‘해’는 “많이”라는 뜻도 나타냈지만, “매우” 또는 “너무”의 의미로 쓰였다. 하지만 “매우”, “너무”의 의미를 나타내는 ‘만히’는 중세국어에서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것은 어기인 ‘하-’와 ‘만ㅎ-’의 의미

25) 이승녕(1981: 123-124)에서는 부사 파생접미사를 ‘-이’와 ‘-히’의 두 종류로 설정한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이’만을 인정하고, ‘Xㅎ-+이’에서 ‘·’ 탈락에 의해 ‘히’가 나타난 것으로 본다.

26) 김성규(2003: 35)에서 부사를 파생시키는 접미사 ‘-이’는 어기가 용언 어간일 때 거성과 같이 울동의 영역 안에서 변한다고 하였다. 이는 ‘만히’의 ‘히’가 거성으로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구분관(2004: 123-130)에서는 ‘Xㅎ-+이’ 부사의 성조를 ‘X’가 한자어일 때와 고유어일 때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X’가 고유어일 때 ‘Xㅎ-+이’ 전체의 끝음절 성조는 거성 또는 평성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즉 ‘X’를 이루는 음절에 거성이 나타나면 대부분 거성으로 나타나고, ‘X’를 이루는 음절이 모두 평성이면 끝음절의 성조가 대부분 평성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차이로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중세국어에서 ‘하다’는 “많다” 외에도 “크다”, “많아진다”, “심하다”의 의미를 나타내지만, ‘만하다’는 “많다”의 의미만 나타내었다. 따라서 부사 ‘만히’는 “많이”의 의미만 보여줄 수 있었을 것이다.<sup>27)</sup>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하-’와 ‘만하-’는 부사 파생 접미사 ‘-이’를 통해 각각 ‘해’와 ‘만히’를 형성했음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해’는 “많이”뿐만 아니라 “매우”, “너무”의 의미도 나타낼 수 있었음에 비해, ‘만히’는 거의 대부분 “많이”의 뜻으로 쓰였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하-’에 의해 형성된 부사 ‘하’는 영파생에 의해 형성된 것이 아니라 ‘하+아’가 어휘화하여 형성되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 3. ‘하다’와 ‘만하다’의 통사론적 특성

그동안 ‘하다’, ‘만하다’가 어떤 구문을 이루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논의되지 않다가 이영경(2003<sup>7)</sup>)에서 이들이 ‘있다’, ‘없다’와 같은 ‘존재 형용사’<sup>28)</sup>에 속하는 것으로 보았다.<sup>29)</sup> 이는 ‘하다’, ‘만하다’가 기본적으로 ‘존재’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있다’, ‘없다’와 거의 일치하는 문형을 보여 주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여기서는 먼저 존재 구문에 대해 검토해 보고, 이러한 존재 구문의 특성이 ‘하다’

27) 익명의 심사위원께서는 부사 ‘하’가 어휘화를 통해 형성되었을 가능성을 언급하였으므로, 그것과 마찬가지로 ‘만하’ 또는 ‘만하’의 존재 여부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주셨다. ‘만하’는 중세국어에서 찾아보기 어려웠고, ‘만하’는 16세기 자료에서 다음의 두 예를 찾을 수 있었다. 이 ‘만하’는 ‘만하-’의 활용형으로 파악된다.

ㄱ. 뉴더기논 네 불셔도 아니 주논가 너견마논 스시리 만하 잇더시니 <순천67:6>  
 ㄴ. 너도 종을 업셔 호되 스시리 만하 다 못하거니와 뉴더기논 가도 못 브리 라 <순천87:5>

28) 이 ‘존재 형용사’와 이후에 나오는 ‘성상 형용사’의 개념은 이영경(2003<sup>7)</sup>)의 형용사 분류를 따른 것이다.

29) 현대국어의 ‘많다’에 대한 논의도 참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현대국어의 ‘많다’가 ‘있다’, ‘없다’와 같은 구문을 보여 준다고 한 논의도 있다(유현경 1998).



에도 나타나는지 살펴볼 것이다.

우선 다음의 예를 살펴보자.

(15) ㄱ. 큰 바닷 內에 十寶山이 이쇼디 貴코 노포미 須彌山을 몬 밋느니라  
 <釋詳20:21b>

ㄴ. 一切 世間 天人 中에 너 곤흐니 업스니 <月釋18:57a>

ㄷ. 디나견 오란 劫에 弗沙佛入 時節에 두 菩薩이 겨샤디 혼 일후문  
 釋迦牟尼시고 <月釋1:51b>

(15)는 ‘있다’, ‘없다’, ‘겨시다’가 ‘존재 대상’과 ‘처소’가 함께 실현된 형식의 구문을 보여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NP<sub>1</sub>-에 NP<sub>2</sub>-이 있’ 구문은 대상이 ‘어디에’ 있는지를 밝히고 있다는 측면에서 ‘소재 구문’으로 부를 수 있을 것이다.<sup>30)</sup> 이 소재 구문은 그동안 ‘있’의 기본 문형으로 설명되어 왔다(이현희 1994: 141, 이영경 2003: 187).<sup>31)</sup>

‘NP<sub>1</sub>-에 NP<sub>2</sub>-이 A’와 같은 형식의 구문은 ‘하다’ 구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16) ㄱ. 오직 西天나라틀해 흰 象이 하니라 <月釋2:31b>

ㄴ. 宮中에 사르미 하니 聖體 잇비 마르쇼셔 <內訓2:99a>

(16ㄱ)은 “오직 인도의 여러 나라에만 흰 코끼리가 많으니라”, (16ㄴ)은 “궁중에 사람이 많으니”로 해석되는데, 이 문장들은 “어디에 무엇이 많다”의 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존재 대상과 처소가 함께 표현되어 있다.

30) ‘소재’와 ‘소유’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박양규(1975)에서부터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는데, ‘소재’와 ‘소유’가 무엇인지와 그 둘 사이의 관계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러면서 ‘소유’의 의미란 첫 번째 명사구와 두 번째 명사구의 관계에 대해 화자나 청자가 부여하는 ‘실용적인 의미’인 것이지 ‘문법적인 측면’과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즉, 소재 구문과 소유 구문을 나누어 설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31) 현대국어의 ‘있다’가 ‘소재’를 표현할 때 ‘NP<sub>1</sub>-에 NP<sub>2</sub>-이 있’의 기본 문형을 보인다는 논의는 유현경(1998: 201-209) 참조.

그런데 ‘있다’, ‘없다’, ‘겨시다’는 ‘NP<sub>1</sub>-에 NP<sub>2</sub>-이 있-’외에 ‘NP<sub>1</sub>-이 NP<sub>2</sub>-이 있-’와 같은 주격 증출문도 이를 수 있었다.

- (17) 가. 長者 | 혼 큰 지비 이쇼되 <법화2:102b>  
 나. 太子 | 므스 罪 겨시관되 이리 드외어시뇨 <釋詳24:51b>

(17)과 같은 주격 증출문을 ‘소유 구문’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이런 관점에서는 NP<sub>1</sub>과 NP<sub>2</sub>의 관계를 ‘소유’로 파악한다. (17가)의 ‘장자’와 ‘집’, (17나)의 ‘태자’와 ‘죄’도 소유 관계라고 할 수 있다.

‘하다’도 ‘NP<sub>1</sub>-이 NP<sub>2</sub>-이 하-’와 같은 구문을 보여준다.

- (18) 가. ㅎ다가 衆生이 姪慾이 하도 상네 觀世音菩薩을 念ㅎ야 恭敬ㅎ면  
 곧 欲 여희요되 得ㅎ며 <법화7:60b>  
 나. 이럴씩 如來 | 福德 하다 니르시느니라 <金剛45a>  
 다. 阿難이 다시 슬보되 大愛道 | 善ㅎ쁘디 하시며 부테 처섬 나거시  
 늘 손소 기르스쁘시니라 <月釋10:19a>

(19가)은 “중생이 음욕이 많아도”로, (19나)은 “여래가 복과 덕이 많다”로, (19다)은 “대애도가 선한 뜻이 많으시며”로 해석될 수 있다. 여기서 첫째명사구는 모두 유정물인데, 이것이 둘째명사구와 소유 관계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sup>32)</sup>

정리하면 ‘있다’, ‘없다’, ‘겨시다’, ‘하다’, ‘만 ㅎ다’는 소재 구문과 소유 구문의 두 문형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sup>33)</sup>

32) 이러한 문장을 달리 파악하는 견해도 있다. 즉 소재 구문과 소유 구문을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관점에서는, 첫째명사구와 둘째명사구를 ‘소유’ 관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첫째명사구를 둘째명사구의 처소로 보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는 예컨대 (18다)과 같은 문장이 원래 “大愛道에게 선한 뜻이 많다”였다고 본다.

33) 이 글에서는 소재 구문과 소유 구문을 나누어 설명하였는데, 과연 이 둘을 구별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있다’에 대해 소재 구문과 소유 구문을 별도로 설정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의 논의는 한재영(1996), 이안구(2002)와 이영

그런데 ‘하다’는 ‘NP<sub>1</sub>-에 NP<sub>2</sub>-이 하-’, ‘NP<sub>1</sub>-이 NP<sub>2</sub>-이 하-’ 외에 (20)과 같은 구문도 이룰 수 있었다.

- (20) ㄱ. 네 킨 누른 고지 하니 새려 비소니 흰 머리터리 적도다 <杜初 11:30b>  
 ㄴ. 네 드로니 黃金이 하면 아자서 뉘웃부미 나물 보느니라 호니 <杜初22:20a>

(20)은 ‘NP<sub>1</sub>-이 하-’ 구문이다. 용례수를 검토해 보았을 때 ‘하다’가 이루는 구문의 대부분은 이러한 형식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NP<sub>1</sub>-이 하-’ 구문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NP<sub>1</sub>-이 하-’구문이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는 구문인지 생각해 보기로 한다.

- (21) ㄱ. 목수미 몬 이실까 너겨 <釋詳11:20b>  
 ㄴ. 호오새면 이우지 업거니 <楞嚴3:37a>

(21)은 소재 구문이지만 처격어가 나타나 있지 않은 문장이다(이현희 1994: 146). 이것은 현대국어의 “신이 있다”, “주가 폭락으로 손해 본 사람이 있다” 등

---

경(2003)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재영(1996: 151-182)에서는 ‘있다’, ‘없다’, ‘겨시다’의 구문 구조를 논의하면서, 소재 동사(한재영(1996)에서는 ‘존재 동사’라 함)와 소유 동사의 구문 형식을 따로 구분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들이 공유하는 구문 구조가 상당수 있고, 그들의 의미 차이가 구문 구조에 기댄다기보다는 의미해석과정에서 드러난다는 근거를 들었다. 이안구(2002: 53-57)에서는 (17ㄱ)의 예를 통해 ‘장자가 집을 가지고 있다’, ‘장자가 집이 있다’, ‘장자에게 집이 있다’는 모두 동일한 의미를 나타낸다고 보았다. 즉 존재, 처소, 소유는 근본적으로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단 이것은 표현 양상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는 것이라 하였다. 이영경(2003ㄱ: 191-193)에서도 첫째명사구가 모두 ‘처소’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NP<sub>1</sub>-이 NP<sub>2</sub>-이 있-’에 대해 소유 구문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고, 소재 구문의 형식에서 변환된 것으로 파악하였다. 한편 ‘있다’에 대해 소재 구문과 소유 구문을 구분하여 설명한 논의로는 이현희(1994: 154-156)과 이상금(2006)을 참조할 수 있다.

의 문장과 같은 형식의 문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문장은 어떤 대상의 존재 자체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인지 존재 대상이 어디에, 언제,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지는 문제 삼지 않는다.<sup>34)</sup> (20)도 어떤 대상의 존재 자체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문장이라 할 수 있다.

이 (20)은 다음의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NP<sub>1</sub>-에 NP<sub>2</sub>-이 하-'에서 'NP<sub>1</sub>-에'가 생략되어 'NP<sub>1</sub>-이 하-'로 나타난 것이라 보는 것이고, 둘째, 'NP<sub>1</sub>-이 하-'라는 구문 유형을 새롭게 설정하는 것이다.

먼저 첫째 관점부터 살펴보면, 'NP<sub>1</sub>-에 NP<sub>2</sub>-이 하-'에서 'NP<sub>1</sub>-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는 경우는 'NP<sub>1</sub>-에'가 복원 가능할 때<sup>35)</sup> 그 처소가 한정적이거나 특정적이지 않을 때이다.<sup>36)</sup> 이러한 경우는 존재문에서 존재 대상만이 중시되고, 그

34) 신선경(2002)에서는 '있다' 구문에 대해 '존재론적 존재', '유형론적 존재', '사건적 존재', '처소적 존재' 구문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 논의에서 '존재'라는 용어를 '소유와 소재를 아우르는 개념'으로 사용한 것은 아니었다. 다만, 존재 구문을 다양하게 나눈 것을 참고하여 이 글에서는 '존재'를 '소유와 소재를 아우르는 개념'으로 쓰고자 한다. 한편 이상금(2006)에서는 '있다'를 '소유', '존재', '소재'라는 각각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때의 '존재'는 신선경(2002: 34)의 '존재론적 존재'를 나타내는 구문과 같은 것이었다. '존재론적 존재'를 나타내는 구문은 '신은 있다'와 같이 단지 어떤 대상의 존재 여부 및 단순한 존재성만을 문제 삼고, 대상의 시간적 또는 공간적 위치 등은 필수적인 요소로 취급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신은 있다'와 같은 문장을 '존재론적 존재'를 나타내는 구문으로 파악하지 않는다. '학교에 감나무가 있다'와 같이 어떤 대상의 소재를 나타내는 구문에서 '감나무가 있다'와 같이 처소 표현이 드러나지 않는 구문의 하나로 본다. 이에 대해서는 이후 논의 참조.

35) 한재영(1996: 158-163)에서는 'NP-에'의 다양한 양상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러면서 'NP-에'가 생략된 예들을 화자와 청자가 공유하고 있는 정보일 경우, 처소역의 내용이 일반적인 경우 등으로 그 유형을 나누어 살펴보았다. 복원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한재영(1996)에서는 '생략'이라는 표현을 썼다.

36) 이 글에서는 처소 표현이 의미상 한정성(definiteness)과 특정성(specificity)을 갖는 명사구이어야 한다고 본다. 이에 대한 설명은 이정민(1992: 397-398)을 참조할 수 있는데, 그에 따르면 한정성과 특정성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한정성은 '가정된 친숙성(assumed familiarity)' 즉 '화자와 청자 사이의 공통된 장을 위해 대화의 영역 속에 도입된

처소를 굳이 밝힐 필요가 없을 때에 해당된다. (20)도 존재 대상 그 자체만이 중시 되는 문장이므로, ‘NP<sub>1</sub>-에 NP<sub>2</sub>-이 하-’에서 처소 표현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자 한다.<sup>37)</sup>

한편 ‘NP<sub>1</sub>-이 하-’ 구문이지만 (20)과 달리 보아야 할 예가 있다.

- (22) ㄱ. 닥와 드트레 사호맷 뵘소리 하니 브름 부는 몫겨레 널 비 적도다  
 <杜初10:37b>  
 ㄴ. 十月에 뵈치위 하니 외로윈 자새 몫氣運이 어득호도다 <杜初  
 3:28a>

(22ㄱ)의 ‘하니’는 “크니”로, (22ㄴ)의 ‘하니’는 “심하다”로 해석된다. 중세국어에서 ‘하다’는 “크다” 또는 “심하다”와 같은 의미로도 쓰일 수 있었는데, 이 때 ‘하다’ 구문은 (22)과 같이 ‘NP<sub>1</sub>-이 하-’로 나타난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다음의 예를 살펴보고자 한다.

대상의 속성을 서술하는 성상 형용사가 만드는 구문은 다음의 (23)과 같다.

---

것으로 전제가 되는 대상에 관한 표현이며, 특징성은 ‘화자가 가정하는 정체 확인 가능성(identifiability)’과 관련된 것이다. 그런데 한정적이지 않고, 특징적이지 않은 처소 표현의 경우, 그것을 과연 ‘생략’되었다고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37) 소재 구문에서 처소 표현이 나타나지 않은 예는 현대국어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다.

- ㄱ. 가방에 뭐 있어?  
 ㄴ. 가방에 책 있어.  
 ㄷ. 책 있어.

(ㄱ)과 같은 질문을 받았을 때, (ㄴ)뿐만 아니라 (ㄷ)의 대답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 맥락에서는 ‘가방에’가 충분히 복원 가능하고, 어떤 대상이 존재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 대상이 어디에 있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한편, ‘주식으로 손해본 사람이 많다’와 같은 문장의 경우 그러한 사람이 ‘어디에, 언제, 어떻게’ 존재하는가는 문제되지 않는다. 이때는 굳이 처소를 밝힐 필요가 없게 된다. 이 문장도 (ㄷ)과 마찬가지로, 어떤 대상이 존재하느냐 그 자체가 중시하는 것이지, 그 대상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는 문제삼지 않는 것이다.

- (23) ㄱ. 뵘히 높고 바리리 기프며 히 돋고 드리 디돗다 <금삼4:45a>  
 ㄴ. 아들들히 저며 아논 이리 업서 <월석 15:25a>  
 ㄷ. 勞度差 | ㅅ 흔 쇼를 지서 내니 모미 ㄹ장 크고 다리 굽고 쓰리  
늘갑더니 <釋詳6:32b>

(23)의 밑줄 친 형용사는 이영경(2003 ㄱ)에서 성상 형용사로 다루어진 예이다. 이 형용사들은 사물의 속성이나 상태를 서술해 주는데, ‘NP<sub>1</sub>-이 A’ 구문을 이루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2)의 ‘하다’가 “크다”, “심하다”의 의미로 쓰였다는 점에서, (22)는 (20)이 아닌 (23)에 가까운 구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22)의 ‘NP<sub>1</sub>-이 하-’는 소재를 나타내는 ‘NP<sub>1</sub>-에’가 나타나지 않은 구문이 아니라, ‘산이 높다’와 같은 구문인 것이다. 따라서 ‘NP<sub>1</sub>-이 하-’ 구문이 소재 구문인가 아닌가는 ‘하-’가 어떤 의미로 쓰였는가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하다’는 ‘NP<sub>1</sub>-에 NP<sub>2</sub>-이 하-’의 소재 구문과 ‘NP<sub>1</sub>-이 NP<sub>2</sub>-이 하-’의 소유 구문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용례를 검토해 볼 때 ‘하다’는 주로 ‘NP<sub>1</sub>-이 하-’ 구문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소재 구문에서 처소 표현이 나타나지 않은 구문일 경우도 있고, ‘NP<sub>1</sub>-이 크-’와 같은 구문일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하다’ 구문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이제 ‘만하다’ 구문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중세국어에서 ‘하다’에 비해 ‘만하다’는 그 용례수가 적다. 그리고 ‘만하-’는 ‘하다’와 달리 통합되는 어미도 다양하지 않았다.

다음의 예를 보자.

- (24) ㄱ. 이 法華經이 能히 衆生으로 一切 智에 니를에 흐며 一切 世間에서  
죵이 만코 信호미 어려운 거시라 아릭 묻 니르던 거스로 오늘 니르  
 느니라 <法華5:63b>  
 ㄴ. 劫濁은 劫時節이니 時節에 모던 이리 만하야 흐리워 業을 니르와  
 들 씨라 <月釋11:117b>

- ㉔. 釋迦牟尼佛入法中에 便安<sub>흐</sub> 이리 만<sub>흐</sub>시고 衰<sub>흐</sub>며 설<sub>븐</sub> 일 들<sub>히</sub>  
업스시다 듣<sub>좁</sub>노라 <sub>흐</sub>야 <月釋10:26a>
- ㉕. 우<sub>메</sub> 두리<sub>븐</sub> 이리 만<sub>커</sub>든 이트<sub>렛</sub> 사<sub>르</sub>미 地<sub>藏</sub> 일<sub>후</sub>를 듣<sub>거</sub>나 地<sub>藏</sub>  
양<sub>즈</sub>를 보<sub>거</sub>나 <月釋21:170a>

(24ㄱ)은 “일체 세간에서 원망이 많고”로, (24ㄴ)은 “그 당시에 모진 일이 많아서”로 해석된다. (24㉔)은 “석가모니의 법에 편안한 일이 많으시고”, (24㉕)은 “꿈에 두려운 일이 많을 때”의 의미를 나타내는 문장이다. 여기서 ‘만하다’도 ‘하다’와 같이 ‘NP<sub>1</sub>-에 NP<sub>2</sub>-이 만<sub>흐</sub>-’ 형식의 소재 구문을 보여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NP<sub>1</sub>-에 NP<sub>2</sub>-이 만<sub>흐</sub>-’ 구문은 (24)의 예만 찾을 수 있었다.

‘만하다’는 ‘NP<sub>1</sub>-이 NP<sub>2</sub>-이 만<sub>흐</sub>-’ 구문도 이룰 수 있었다.

- (25) ㄱ. 無盡意여 觀世音菩薩이 이러<sub>듯</sub>흐 큰 威<sub>神</sub>力이 이<sub>셔</sub> 饒<sub>益</sub>호<sub>미</sub> 만<sub>흐</sub>  
니 이<sub>런</sub> 도<sub>로</sub> 衆<sub>生</sub>이 상<sub>네</sub> 므<sub>스</sub>매 念<sub>후</sub> 띠<sub>니</sub>라 <法華7:63b>
- ㄴ. 鼠<sub>느</sub> 奸<sub>曲</sub> 만<sub>코</sub> 잘 숨<sub>느</sub>니 迷<sub>惑</sub>흐 사<sub>르</sub>미 그<sub>스</sub>기 어<sub>두</sub>워 머<sub>굴</sub>워여  
수<sub>며</sub>서 <法華2:109b>
- ㉔. 우<sub>리</sub> 팔<sub>지</sub> 사<sub>오</sub>나와 즈<sub>식</sub> 만<sub>흐</sub>니 <순천95:5>

(25)의 첫째 명사구는 유정 체언이다. (25ㄱ)은 “觀世音菩薩의 饒益함”, (25ㄴ)은 “쥐의 奸曲”은 소유의 관계로 볼 수 있다. (25㉔)의 “우리가 자식이 많으니”도 소유 관계로 볼 수 있는데, ‘하다’ 구문에서와 마찬가지로 ‘만하다’도 ‘NP<sub>1</sub>-이 NP<sub>2</sub>-이 만<sub>흐</sub>-’의 소유 구문을 이룰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만하다’ 구문은 주로 다음과 같은 ‘NP<sub>1</sub>-이 만<sub>흐</sub>-’ 형식으로 나타났다.

- (26) ㄱ. 幾<sub>는</sub> 조<sub>가</sub>기니 瞞<sub>교</sub> 이리 만<sub>흐</sub>실<sub>씩</sub> <sub>흐</sub>릿 內<sub>에</sub> 一<sub>萬</sub> 조<sub>가</sub>기시다 <sub>흐</sub>  
느<sub>니</sub>라 <月釋序16b>
- ㄴ. 그 瞞<sub>교</sub> 五<sub>百</sub>萬<sub>億</sub> 諸<sub>梵</sub>天<sub>王</sub>이 偈<sub>로</sub> 부<sub>터</sub> 讚<sub>歎</sub>호<sub>습</sub>고 各<sub>各</sub> 부<sub>터</sub>고  
술<sub>보</sub>되 願<sub>호</sub>든 世<sub>尊</sub>이 法<sub>輪</sub>을 轉<sub>호</sub>샤 便<sub>安</sub>호<sub>미</sub> 만<sub>케</sub> <sub>흐</sub>시며 度<sub>脫</sub>  
을 만<sub>히</sub> <sub>흐</sub>쇼셔 <月釋14:30b>

- ㉔. 그리 흐니 더욱 설은 저기 만코 셤그미 년도 이제는 반흐고 영그미  
 도 하 어업시 되여시니 바비나 편으니 어더 먹느냐 <순천164:6>  
 ㉕. 아이고 슬 마리 만타마느 쵸히 저저 묻 스로다 <순천3:24>

앞서 ‘NP<sub>1</sub>-이 하-’를 논의하면서, ‘NP<sub>1</sub>-이 하-’중에는 소재 구문으로 파악해야 할 것과 ‘크-’와 같은 성상 형용사가 이루는 구문과 같은 형식으로 파악해야 할 것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면서 둘 중 어떤 구문에 속하는지는 ‘하-’의 의미에 따라 파악된다고 하였다. (26)의 ‘NP<sub>1</sub>-이 만흐-’ 구문에서 ‘만흐-’는 “많다”의 의미로 쓰였다. 따라서 이 구문은 소재 구문에서 ‘NP<sub>1</sub>-에’가 드러나지 않은 구문으로 볼 수 있다.

한편 (27)은 앞서 살펴본 ‘NP<sub>1</sub>-이 NP<sub>2</sub>-이 만흐-’ 구문을 보여 주는 예이다.

- (27) ㉑. 네는 聖賢이 得道흐니 만터니 이젠 묻 드드리소니 이 正法像法の  
 效驗 달오미라 <月釋12:15a>  
 ㉒. 軍士 주그니 만흐더니 꺄올히 섭나모 싸하 블 디르고 將士 더블  
 오 블 알픽 활 머겨 셔야 기드리더니 <三綱런던忠28>  
 ㉓. 풍속이 붉디 묻흐고 사르미 즐어주그리 만흐니라 <飜小7:30b>

(27)에는 둘째 명사구에 형식명사 ‘이’가 나타나 있다. (27㉑)은 “성현 중에 깨달은 사람이 많더니”, (27㉒)은 “군사 중에 죽은 사람이 많더니”, (27㉓)은 “사람들 중에 요절한 이가 많다”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런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 (27)에서 형식명사 ‘이’는 첫째 명사구와 동일지시적인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27)의 예들은 ‘NP<sub>1</sub>-이 NP<sub>2</sub>-이 만흐-’ 구문이 아니라, (26)과 같은 ‘NP<sub>1</sub>-이 만흐-’ 구문이라 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하다’와 ‘만흐다’는 모두 소재 구문과 소유 구문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한편 ‘하다’는 “크다”, “심하다”의 의미로도 쓰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성상 형용사 구문과 같은 ‘NP<sub>1</sub>-이 하-’ 구문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4. 결론

이 글에서는 ‘하다’와 ‘만하다’의 형태론적 특성과 통사론적 특성에 대해 살펴 보았다. 형태론적 특성은 활용상의 특성과 단어 형성상의 특성으로 나누어 살펴 보았다. 활용상의 특성을 살펴보면, ‘하-’가 동사적 용법도 지니고 있었다는 것과 형용사로 쓰인 ‘하-’에도 ‘-느-’가 통합된 예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만하-’는 동사적 용법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한편 단어 형성상의 특성을 살펴 보면서, ‘하-’를 통해 형성된 부사로는 ‘하’와 ‘해’가 있는데, ‘하’는 영파생이 아니라 어휘화를 통해 형성되었다는 것에 대해 논의하였다.

통사론적 특성을 살펴보면, ‘하다’와 ‘만하다’ 모두 ‘NP<sub>1</sub>-에 NP<sub>2</sub>-이 A’의 소재 구문과 ‘NP<sub>1</sub>-이 NP<sub>2</sub>-이 A’의 소유 구문을 이룰 수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면서 ‘하다’, ‘만하다’의 구문은 ‘NP<sub>1</sub>-에 NP<sub>2</sub>-이 A’, ‘NP<sub>1</sub>-이 NP<sub>2</sub>-이 A’보다는 ‘NP<sub>1</sub>-이 A’ 형식으로 훨씬 많이 쓰인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때의 ‘NP<sub>1</sub>-이 A’는 소재 구문이나 소유 구문과 구별되는 제3의 형식이 아니라 ‘NP<sub>1</sub>-에 NP<sub>2</sub>-이 A’의 소재 구문에서 처소 표현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였다. 그렇지만 이것과 성격이 다른 ‘NP<sub>1</sub>-이 하-’ 구문이 있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하다’가 “크다”, “심하다”의 의미로 쓰였을 경우에도 ‘NP<sub>1</sub>-이 하-’ 구문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처소 표현이 생략된 ‘NP<sub>1</sub>-이 하-’ 구문이 아니라 성상 형용사 구문과 같은 ‘NP<sub>1</sub>-이 A’ 구문으로 보였다.

지금까지 중세국어 ‘하다’와 ‘만하다’의 문법적 특성에 대해 부족하게나마 살펴보았다. 그러면서 ‘하다’와 ‘만하다’가 가지고 있는 문법적 특성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중세국어뿐만 아니라 근대국어까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중세국어에서 ‘만하다’보다 훨씬 많이 쓰이던 ‘하다’가 왜, 언제, 어떠한 양상으로 그 세력을 잃어 가고, ‘만하다’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것이 아닌가 한다. 또한 ‘만하-’가 ‘맏-’으로 재구조화된 시기 및 ‘만하-’와 ‘맏-’의 공존 양상도 흥미로운 문제이다. 한편, 이 글에서

충분히 논의하지 못한 선어말어미 ‘-느-’의 기능에 대해서도 보다 깊이 있는 고찰이 필요할 것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고자 한다.

## 참고문헌

- 고영근(1997), 개정판 『표준중세국어문법론』, 탑출판사.
- 구본관(1996), 「중세 국어 형태」, 『국어의 시대별 변천 연구 I』, 국립국어연구원, 57-111.
- 구본관(2004), 「중세국어 ‘X-+이’ 부사 형성」, 『국어국문학』 136, 국어국문학회, 105-133.
- 김성규(1987), 「어휘소 설정과 음운현상」, 국어연구 77.
- 김성규(1994), 「중세국어의 성조 변화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성규(2003), 「문헌에서의 성조」, 2003년 여름 국어학회 집중강좌 자료집, 23-38.
- 김완진(1973/1977), 『중세국어성조의 연구』, 국어학총서 4, 국어학회, 탑출판사.
- 박성현(1989), 「국어의 부사화소 {-이}와 {-계}에 대한 사적 연구」, 서울대 언어학과 석사학위논문.
- 박양규(1975), 「소유와 소재」, 『국어학』 3, 국어학회, 93-117.
- 박진호(1994), 「통사적 통합 관계와 논항 구조」, 국어연구 123.
- 송원용(1998), 「활용형의 단어 형성 참여 방식에 대한 연구」, 국어연구 153.
- 송철의(1992), 『국어의 파생어형성 연구』, 국어학총서 18, 태학사.
- 신선경(2002), 『‘있다’의 어휘 의미와 통사』, 국어학총서 42, 태학사.
- 안병희·윤용선·이호권(2002), 《중세국어연습》,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 양정석(1995), 『국어 동사의 의미분석과 연결이론』, 박이정.
- 유현경(1998), 『국어 형용사 연구』, 한국문화사.
- 유창돈(1971), 『어휘사 연구』, 선명문화사.
- 유필재(2003), 「후기중세국어 용언 어간의 성조와 기저형 설정」, 『어학연구』 39-1, 서울대 어학연구소, 135-147.

- 유현경(1998), 『국어 형용사 연구』, 한국문화사.
- 이기문(1998), 개정판 『국어사개설』, 태학사.
- 이상금(2006), 「중세국어 다소표현형용사의 문법적 연구」, 국어연구 188.
- 이승욱(1997), 『국어 형태사 연구』, 태학사.
- 이승녕(1981), 『중세국어어문법 - 15세기 국어를 주로 하여』, 을유문화사.
- 이안구(2002), 「‘있다’와 ‘없다’에 대한 통시적 연구」, 국어연구 169.
- 이영경(2002), 「중세국어 형용사 ‘갓갑다/멀다’의 통사의미적 특성」, 『국어학』 40, 국어학회, 195-219.
- 이영경(2003ㄱ), 「중세국어 형용사 구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영경(2003ㄴ), 「중세국어 형용사의 동사적 용법에 대하여」, 『형태론』, 5-2, 273-295.
- 이익섭(1975), 「국어 조어론의 몇 문제」, 『동양학』 5, 단국대학교, 155-165.
- 이정민(1992), (비)한정성/(불)특정성 대 화제/초점, 『국어학』 22, 국어학회, 397-423.
- 이현희(1994), 『중세국어 구문연구』, 신구문화사.
- 이현희(2003), 「중세국어의 형태론과 관련된 몇 문제」, The International Workshop on Morphology 발표 자료집.
- 임홍빈(2002), 국어 품사 분류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국어연구의 이론과 실제》, 705-707.
- 장윤희(2002), 「국어 동사사의 제문제」, 『한국어 의미학』 10, 한국어의미학회, 97-141.
- 채현식(2000), 「유추에 의한 복합 명사 형성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동주(1995), 「국어 시상체계의 통시적 변화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한재영(1996), 『16세기 국어 구문의 연구』, 신구문화사.
- 홍윤표(1998), 「‘하다’와 ‘많다’와 ‘크다」, 『국어 어휘의 기반과 역사』, 태학사. 575-591.
- Lipka, L.(1992), *An Outline of English Lexicology: lexical structure, word semantics and word-formation*, Max Niemeyer Verlag Tübingen.

424 인문논총 제58집 (2007)

원고 접수일: 2007년 9월 30일

게재 결정일: 2007년 11월 12일

## ABSTRACT

## The Grammatical properties of ‘hada’ and ‘manhΛda’ in the Middle Korean

Lee, Sangkeum

This paper aims at examining the grammatical properties of some adjectives that represent ‘be many’ or ‘be much’ such as ‘hada’(하다), ‘manhΛda’(만하다).

Chapter 2 discusses the morphological properties. Through the conjugation of ‘hada’, ‘manhada’, the usage of them is examined. There are some forms that ‘ha-’ and the prefinal ending ‘-na-’(-ㄴ-) are combined. Some of them use as verbs. But the other use as adjectives. Even though both ‘hada’, ‘manhΛda’, the conjugation is quite different. In addition, the words which were formed based on the radical ‘ha-’ and ‘manhΛ-’ are discussed.

Chapter 3 deals with the syntactic properties. The constructions of ‘hada’, ‘manhΛda’ have not been investigated until they are considered to be the same as the existential adjectives such as ‘itda’, ‘eopda.’ Based on the Chapter 2 which critically dealt with this problem, I try to clarify whether the ‘hada’, ‘manhΛda’ which represent both ‘degree of quantity’ and ‘existence of object’, are considered to be the same as the existential ones. I also make comparison with other adjectival constructions.

Chapter 4 summarizes all the discussions and brings up some future tasks.